大韓建築學會學術發表論文集
第7卷 第1號 1987年 4月25日

근대 실내장식의 경향에 관한 연구
-건축사조와 의자형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ends of modern interior design)
-Focused on the Architectural tendency and chair style-

ㅇ문 창 호* 이 광 노**
Moon, Chang Ho Lee, Kwang No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light the trends of modern interior design. Period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World War II is concerned. Major art movements in this period are Arts & Crafts Movement, Art Nouveau, De Stijl, Bauhaus and Art Deco. For these move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tendency & the chair style which is important factor in interior design are analysed in connection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 conflicts between the positively acceptance of new technologys & materials and the consistency of the traditional handcrafts have been continued, and these two respects reflecting the Zeitgeist & architectural trends have been developed with emphasis in turn.

Ⅰ. 서 론

19세기에 이르러 건축이나 실내장식에 있어서 기계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등 사회적 변혁들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탄생시킨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수공예와 신기술,즉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 장식과 장식의 제거등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예술운동이 부침을 계속하고,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면서 조심스럽게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현대 건축이나 실내장식의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경향들을 건축사조와 실내장식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의자형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 그 흐름을 파악하며, 연구범위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부터 세계2차대전까지의 시대로 한정하였고,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에 의존하였다.

Ⅱ. 시대적 배경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정치, 경제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된 변화들은 유럽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스도 신앙은 쇠퇴하고 개혁정신이 싹트고 자연계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와 합리적인 사고가 대두되어서 프랑스 혁명(1789년)이 일어나는등 사회제도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과학적인 발견들과 18세기 기계의 발달은 19세기에 와서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의 발명(1769-1784년)과 이 동력장치의 활용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생산공업, 교통 및 교역, 정보교환등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도시의 인구집중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발달로 인하여 이제까지 귀족이나 왕족들을 위한 권위의 상징을 표현하던 디자인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을 위한 기능적 혹은 심미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출현하게 된다. 방적, 섬유공업의 발전을 시초로 하여 각종 공업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특히 공업도시의 인구는 급속히 증대하였고 이러한 인구밀집은 가구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값싸게 많은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업체에서는 수공예적 제작방식이 밀려나고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Ⅲ. 실내장식의 경향

1.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과 신기술의 수용

20세기 현대 디자인의 뿌리가 되는 19세기 디자인의 발전을 보면 두 갈래의 주요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혁명에 의한 신재료의 도입과 생산방법의 계속적인 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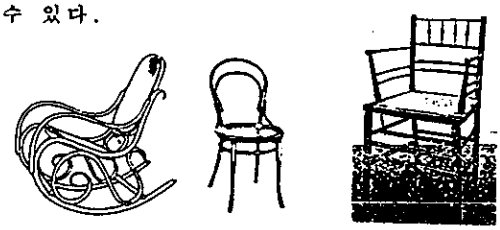
* 정회원, 서울대 대학원 ** 정회원, 건축학회 회장, 서울대 교수

통한 기술적인 진보를 적극 수용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적 질의 향상과 사회적 평등을 주장한 미술공예운동이다.

1) 신기술의 수용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산업혁명의 영향은 가구에 있어서도 수공예적 제작방법을 탈피하여 기계문명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소네트(Michael Thonet)는 1830년에 증기에 의한 곡목기법을 고안하여 너도밤나무를 적층시켜 곡선형태로 형성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의자 프레임(Frame)은 나사못으로 쉽게 조립하게 함으로써 조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여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종래의 의자보다 시각적으로 경쾌한 형태를 갖고 견고하였다. 이 곡목의자의 의의는 새로운 재료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성공적인 적용의 예로 볼 수 있으며 이 적층재에 의한 형성기법은 현대 가구의 개척자인 임스(Charles Eames), 알바 알토(Alvar Alto)등에 의해서 금속, 천, 가죽, 플라스틱등 다양한 재료와 결합되어 오늘날의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곡목의자는 형태로 볼 때 당시에 유행하던 아르 누보 양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재료의 성격에 맞는 의자의 아름다운 곡선은 오히려 유기적인 곡선이 풍부했던 아르 누보 양식에 자극을 주었을 것이고 나아가서 곡선적인 형태의 발전은 1860년에 이르러서 흔들의자(Rocking Chair)를 출현시켰다. 특히 소네트가 제작한 곡목의자는 오늘날까지 폭넓게 애용되고 있는 것은 재질감에서 주는 소박한 느낌과 근대적인 감각을 지닌 형태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네트(1850, 1859) 모리스(1865)

그림 1. 신기술과 미술공예운동의 의자

2) 미술공예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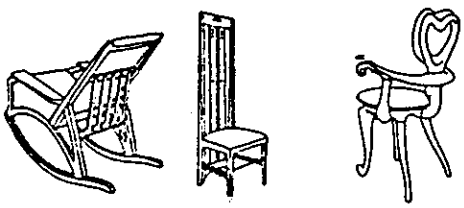
19세기 중반에 과거의 양식을 회고적인 형식으로 감싸려는 모순을 탈피하지 못하고 양식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시기의 가구 디자인은 양식의 역사적 정확성을 무시하면서 역사적 소재를 부활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가구제작자들은 구조를 희생하면서 까지 표면장식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장식은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따라서 수공예에 의한 장식에 비해 질이 훨씬 뒤떨어진 것이었다.

러스킨(John Ruskin)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건축의 여러 형태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충분하며, 현재의 어느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하면서 그 시대 고유의 양식을 탐구할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또 모리스(William Morris)는 중세를 올바른 사회구조라고 믿고 있는데, 즉 예술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되지 않았으며 일상의 노동은 일상적인 예술창조에 의해서 즐거웠으며, 따라서 제작자와 사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서 "대중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860년대 모리스는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중의 생활에 유용한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는 기계생산에 의한 장식의 조악함을 비난하고 중세의 단순함과 수공예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고, 차차 대중의 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공예품을 다수 제작했다. 그는 러스킨과 마찬가지로 산업주의(Industrialism)의 비인간성에 반기를 들었는데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계가 빼앗아간 노동의 즐거움과 기계가 만들어낸 장식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비록 그가 기계를 부정하고 중세의 수공예 전통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것이 현재의 관점으로는 반근대화로 생각될 수 있으나 그가 현대 디자인의 근원으로 평가받는 것은, 그의 예술일반화 사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일반화 이념과 상반되게 수공예로 제작된 가구류는 값이 비쌌기 때문에 일부 상류층에서만 사용되어졌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속에서 결국 모리스는 말년에 들어 기계가 인간의 활동을 도와주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마지막까지 기계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이 운동은 대중의 저속한 취향을 높이고자 노력한 이념적이고 교육적인 운동이었고 1900년대까지 공예가와 예술가가 협동하여 수공예품 제작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2. 아르누보(Art Nouveau)

기계생산에 의한 장식이 없는 간결한 디자인이 19세기 초와 중반에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고양식이나 절충주의 양식은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였고 이러한 역사주의(Historicism)에 대한 반발이 세기말에 거의 동시에 유럽대륙과 스코틀랜드에 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르 누보 운동이다. 예술 전반이 이미 과거의 수법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산업혁명을 발단으로 크게 흔들리게 된 19세기 후반의 상황, 즉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19세기 문명은 물질적 진보에 따른 정신적인 측면이 부응하지 못하여 예술의 근대화를 겨냥하면서도 충분히 그 근대화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정확한 시대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모리스의 추종자로서 복고주의적 전통과 직인기술의 부활등의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은 벨기에의 반 데 벨데(Henri Van de Velde)는 "제품의 논리적 구조와 재료의 사용에서 타협이 없는 논리와 공작과정을 솔직히 반영



벨데(1902) 매킨토쉬(1900) 가우디(1900)
그림 2. 아르 누보의 의자

하는 정신"을 주장하며, 과거의 양식과 결별하고 식물의 유기적인 선을 모티브로 하여 추상화된 형상과 기능을 실내장식이나 가구디자인에 도입한 아르 누보 양식을 프랑스를 기점으로 하여 유럽전역에 파급시킴으로써 예술작품, 즉 회화,조각,건축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정용품과 도시의 가로에 이르기까지 이 양식이 유행하게 하였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유럽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이탈리아에서는 "꽃모양 장식"(Floreale), 독일에서는 "청년양식"(Jugend Stil)이라 불려졌다. 아르 누보가 유행할 무렵 빈에서는 건축가 호프만(Joseph Hoffmann)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적 양식으로부터 분리하고, 아르 누보의 곡선의 미학을 극복하여 실용과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과 가구의 디자인을 추구하는데, 이 운동은 분리파(Secession)라 불렸으며 수평과 수직에 의한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의 실내장식이나 가구디자인을 보여준다. 1903년 호프만은 빈 공방(Wiener Werkstatte)을 설립하여 가구와 실내장식을 한다.

프랑스의 기마르(Hector Guimard)는 곡선주의적 아르 누보의 대표적 디자이너로서 파리 지하철역 입구의 디자인을 했는데, 그는 자연계의 식물이 가지는 곡선의 미에서부터 물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곡선의 아름다움을 장식미술에 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의자는 단순한 장식으로서의 곡선이 아니라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Glasgow)에서는 고딕을 기반으로한 직선구성과 유기적인 장식을 결합시킨 독특한 아르 누보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매킨토쉬(Charles Rennie Mackintosh)는 가장 선구자적으로 자신의 건축과 실내장식 그리고 가구디자인을 통합하고 있다. 그의 의자는 반 데 벨데 이론의 영향을 받아 힘찬 직선의 율동미를 지니고 있으며, 역시 고루한 역사주의의 어떠한 양식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에 풍미하던 곡선취향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는 가우디(Antonio Gaudi)가 건축과 가구의 디자인에 신고딕(Neo-Gothic)풍의 매우 환상적인 아루누보 양식을 전개시켰다.

이 운동이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장식주의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성격의 운동으로의 의의는 첫째, 아르누보는 형태와 패턴에 있어서 상징주의적 미학을 채용한 점 즉, 역사적 요소를 부정하고 자연적 형태에 관심을 두었고 둘째, 장식적인 양식이기는 하지만 구조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예가 많아서 외형의 표면장식보다는 구조에서 시각적 흥미를 느끼며 셋째, 모리스의 영향을 받아 미술가, 건축가, 공예가등이 협동하여 제반 예술을 장식미술로 통합하려 한데 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는 아르 누보의 전성기를 나타내다가 그후 아르 누보는 장식의 기발함을 추구하다가, 구조와 재료의 성질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1910년경에는 급격히 쇠퇴했다. 아르 누보는 역사양식으로부터 근대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의 디자인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 데 스틸(De Stijl)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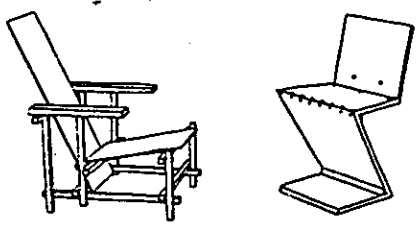
데 스틸 운동의 결성지인 네델란드는 유럽국가중 거의 유일하게 세계1차대전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고, 기술적인 진보와 문화적인 탐구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시의 예술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데 스틸 운동의 배경을 보면, 당시의 입체파(Cubism)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점을 이동시키며 대상을 파악하는 시간의 개념을 첨가한 4차원적 공간개념과 모든 대상을 사실적보다는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기하학적, 추상적 조형개념을 갖고 있었고, 1910년대 베를린에서 발간된 작품집을 통하여 라이트(F. L. Wright)의 건축적 특징, 즉 다수의 입방체로 구성된 복잡하고 비대칭적인 건축형태, 단순한 직선들로 구성된 평면, 공간의 유동성과 개방성,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등이 소개되었고, 네델란드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쉔마커(M. H. J. Schoenmaekers)의 신플라톤(Neo-Platon)철학에서 우주를 수학적 구조(수직과 수평)로 분석하고, 색상은 기본적으로 적색, 청색, 황색등 3색으로 하는등 데 스틸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데 스틸 운동의 이념은 시각예술의 미적개념과 인식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시대의 합리적, 비판적, 보편적 경향을 인식하고 이를 그들의 예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려 했다. 그들은 예술이 어느 특수한 주관적, 개인주의적 표현형식에 의해 지배되는 불균형의 비극적 상황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절대조화에 도달하려 했다.

데 스틸 이론이 반영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의 슈로더(Schroeder)주택인데 여기에서 입체적 형태의 우위성과 교차된 면의 탁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표면의 장식은 제거되었으며 간결한 형태, 명쾌한 비례, 재료의 진실된 사용을 보여준다. 또한 건축공간개념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연속시켜 시선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벽은 공간은 분리시키기 보다는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 개념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데 스틸 그룹은 공간에 있어서 사물이 격리되는 것을 막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것을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과 실내분위기에 어울리도록 기하학적 조형원리가 도입되었고, 가구를 통해서 자유스럽게 공간이 흐를 수 있도록 계획했다.



리트벨트(1917, 1934)

그림 3. 데 스틸 운동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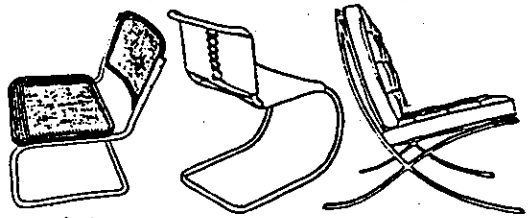
리트벨트는 수평과 수직의 부재와 원색을 이용해서 입체파의 이론에 기초해서 추상적인 가구를 제작했다. 과거의 가구 접합법을 거부하고 블트에 의한 접합을 채용하여 양산을 위한 규격화를 했다. 1917년에 그가 제작한 빨강과 파랑색의 의자(Red Blue Chair)는 데 스틸 운동의 추상적 조형원리와 같이 선은 직각으로 교차하고 서로 겹해있고 또한 계속해서 흐르는 듯이 보인다. 그는 1934년에 쌓을 수 있는 지그재그 의자와 조립식 가구등을 제작함으로서 바우하우스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바우하우스(Bauhaus)

19세기에 진행된 디자인 이론이나 실제 작업들은 미술공예운동, 아르 누보, 기술적인 진보등을 나타났으며, 이러한 움직임들은 근대 디자인을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으며, 그러한 움직임의 의의있는 개별적인 성과를 생활에 적합한 디자인이라는 방향에서 통합하려고 시도한 것이 1907년 무데지우스(Muthesius)에 의해서 설립된 독일공작연맹(Deutsch Werkbund)이다.

19세기 디자인 운동의 결점을 인식하고 미적인 의도에 의해서 통제되고 지배될 수 있는 도구로서 기계를 수긍하게 되었으며 기계공정에 의해서도 어떤 미적 특질을 지닌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는 뚜렷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공작연맹의 이상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성취한 운동으로서의 바우하우스는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서 창설되었는데, 바우하우스는 미술과 공예의 통합을 목표로 하여 국제적으로 건축, 노동, 회화, 조각등의 창작력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의미의 효율적인 디자인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교육과정은 공작법과 형태이론의 두가지를 두었는데 공작교과에는 석공에, 목공에, 금속및 유리공에, 색채학, 직물등이 있고 형태이론에는 설계구성, 공간구성, 구도등 건축과 공예의 이를테면 공간조형미술을 종합한 분야를 가르치고 있었다. 또 이들은 새로운 재료의 과학적인 연구와 합리적인 사용을 모색했고 평범한 표면과 직선적인 윤곽으로 세련된 현대감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개인이나 국민적 취향을 앞세우지 않고 소위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적인 것에 중점을 두어 산업과 예술활동을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은 실험적인 기술로서 기능을 이용하였고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주로 하였다. 즉 저렴한 가격, 최대의 효용성, 좋은 품질 그리고 간결한 형태는 제품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구의 재료로서 사용하지 못했던 금속파이프, 합성수지, 판유리등이 이용되었고 특히 의자의 재료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금속파이프였다.



브로이어(1928) 로에(1926, 1929)

그림 4. 바우하우스의 의자

브로이어(Marcel Breuer)는 신재료인 강판을 최초로 의자 디자인에 도입하여 바실리 의자(Wassily Chair)를 제작했고, 미스 반 데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는 바르셀로나 의자(Barcelona Chair)와 캔틸레버 의자(Cantilever Chair)를 제작했는데 바르셀로나 의자의 기본구조는 납작한 강판(Steel Bar)를 완만한 X자형 곡선으로 결합시켜서 강판의 인장력을 이용하는등 재료의 성질을 적절히 활용했고 선과 비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캔틸레버 의자는 당시의 철골구조에 의한 캔틸레버 구조방식을 응용한 것으로서 강판의 탄력을 이용하는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켜 의자형태에 있어서 이제까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당시의 모든 바우하우스의 작품은 기계에서 얻은 세련된 구조미와 신재료의 적절한 사용에 의한 예술적 표현이 완전히 통합되었고 따라서 지역을 초월하고 개인의 특성이 무시된 일정한 형이 형성된다. 그로피우스는 "건축은 언제나 국민적인 동시에 개인적이다. 그러나 세개의 원, 즉 개인, 민족, 인류의 원중에서 최후의 원이 동시에 다른 두개를 내포한다."라는 공식을 발표하면서 국제주의 양식의 대두를 보게 된다.

근대 디자인의 산지이었던 바우하우스는 1933년 나치에 의해서 폐쇄되고 여기에서 활약하던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이주한

다.

5. 아르 데코(Art Deco)

20세기 초 구미강대국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한 영토확장과 함께 국력의 신장, 국가간의 동맹등으로 각국의 문물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슬람및 일본등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1918년까지의 세계1차대전이후 미국이 정치, 경제상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유럽에 있어서는 군주제도가 대부분 종결됨과 동시에 경제, 문화면의 복구활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기의 사람들은 정서적 불안의 보상심리로 향락적인 분위기에 젖어들어 화려함과 우아함을 찾게 되었다.

아르 데코는 새로운 형태의 탐구와 프랑스의 보자르, 비에나의 세제션, 독일의 표현주의의 등의 영향을 받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본으로 하는 장식이 응용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바우하우스가 기계기술과 순수한 디자인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대량생산의 원형을 찾아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할 무렵 급속히 퇴조한 아르 누보를 대신하여 새로운 장식미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아르 데코 개념이 그 명칭과 함께 일반적으로 인정된 계기는 1925년 파리에서 현대산업과 장식미술의 만국박람회(Paris 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 et Industriels Modernes)이며 아르 데코라는 운동의 이름은 이 박람회에서 따왔고, 유럽의 아르 데코는 절정에 다르는 동시에 실용예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였던 프랑스의 영향력하에 광범위한 대중적 양식으로 전파되었다. 이 박람회는 독창성과 수공예적 기예를 강조함으로서 당시의 바우하우스와 독일공작연맹의 이념이었던 기계생산에 의한 원형추구를 위한 태도와는 반대적인 입장에 섰지만, 아르 데코 양식은 유선형의 부드러운 느낌과 입방형의 견고한 느낌을 잘 조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량생산에도 적합하고 대중적 기호에도 호응되는 우아함의 추구, 즉 기술과 예술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바우하우스 교육이념과도 일부 일치하였다.

미국의 아르 데코는 프랑스의 보자르, 비엔나의 세제션, 독일의 표현주의등의 영향을 받고 미국 상업주의 건축양식의 전통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적인 재특성과 주로 유럽적 영향에 근거하고 있는 새로운 측면의 장식적, 형태적 요소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르 데코 가구는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르 누보와 마찬가지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공예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1930년 대공황을 맞자 보다 대량생산에 의한 값싸고 실용적인 가구가 요구되는 등 새로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시각을 즐겁게 하기 위한 개인적인 장식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집단적, 시간적인 행위중에 논의가 가능하고 만인에게 공통으로 이해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아르 데코는 쇠퇴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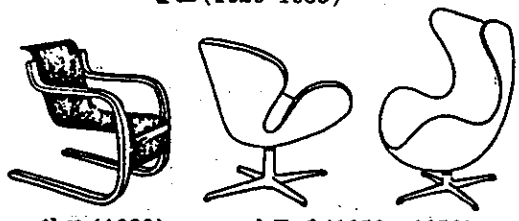
6. 북유럽의 전통

북유럽의 덴마아크, 핀란드, 스웨덴등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을 보면 추운 지방에서 사는 만큼 실내생활이 중심이 되고 특히 가구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그들의 가구는 어느나라보다도 발전이 많았다. 기계생산과 달리 형체와 색상이 민예적이고 소박하여 친근감을 주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가구구조에 거의 전부 목재를 사용하다시피하고 조각에 유사한 형을 많이 만들어 냈다.

산업혁명이 성숙됨에 따라 그 결실로 나타난 기능과 효용성이라는 부산물은 국제적인 것으로서 세계로 확대되었다. 반면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다른 유럽 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업혁명이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옛 수공예의 전통이 생활용품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고, 20세기 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공예의 전통은 독일, 오스트리아의 디자이너에게서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생활양식으로 통합되었다.

1920년대 독일과 프랑스가 금속가구에 열중하고 기능을 지상명제로 여기고 있을 때,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목재를 즐겨 다루었고 기능이라는 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자유스러움과 여유를 갖고 있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이너들은 산업주의에 따른 대량생산이라는 문제에 부딪쳤을때 산업화의 기능적 형태를 천연재료의 따뜻함과 수공예의 전통으로 이를 아름답게 마무리짓는등 모든 디자인은 사용된 재료의 본질적 특성을 우선으로 하였으며 기능은 부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알토(1929-1935)



알토(1933) 야콥센(1959, 1959)

그림 5. 북유럽의 의자

핀란드의 건축가인 알바 알토는 근대건축운동에 자극을 준 사람이며, 그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과 실내 디자인은 그의 가구디자인과 함께 연결된다. 그는 인간의 신체는 유기적인 재료와 접촉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국의 자작나무를 주로 사용했다. 1928년 파이미오(Paimio) 결핵 요양소를 위한 성형합판의 의자를 디자인했고, 그후 뷔퓨리(Vipuri) 도서관을 위해서 의자와 스툴(Stool)을 디자인하는데 이 의자들은 동근좌석에 다리가 셋 달린 것으로서 의자의 등받이를 붙이거나 떼어 내어서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를 찾을 수 있고, 좌석과 맞닿는 부분의 휘어진 다리형태는 의자에 약간의 탄성을 주고 있다. 또 보관시에는 쌓아 올림으로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덴마아크 디자인은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건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덴마아크적인 것으로 소화하였다. 야콥센(Arne Jacobsen)은 성성합판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의자를 디자인하였는데 1925년에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간결하며, 개미모습과도 비슷한 형태로 등받이 탄력을 주는 국제주의 영향이 강하게 엿보이는 앤트 의자(Ant Chair)를, 1959년에는 발포성 고무(Foam Rubber)를 이용한 조각적 형태를 보이는 계란 의자(Egg Chair)와 스완 의자(Swan Chair)를 디자인한다.

북유럽의 의자는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제하면 모든 것이 기계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면서도 인간미가 풍부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점은 "기계와 기예(Craft)가 철저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근대 실내장식의 경향은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한 신기술과 신재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량생산의 시조가 되는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한편, 이러한 산업화의 비인간화에 반기를 들면서 중세의 수공예 전통을 고집한 미술공예운동이 공존하였고, 이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을 받아 자연적 형태, 상징주의적 미학, 종합적 장식예술을 표방한 아르 누보 운동으로 이어진다. 이에 반하여 입체파의 4차원적 조형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개인주의적 표현형식을 탈피하고, 보편적, 객관적인 면을 조화시키려고 의도한 데 스틸 운동과, 또 기계를 도구로 이용하여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독일공작연맹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바우하우스는 기계에서 얻은 세련된 구조미와 신재료의 적절한 사용에 의한 예술적 표현을 통합시키면서 국제주의 양식의 밑거름이 된다 한편 퇴조한 아르 누보를 대신하여 대량생산에도 적절하고 대중적 기호에도 적합한 우아함을 추구하는 절충적 양식인 아르 데코가 등장하여 대공황 직전까지 하나의 경향을 유지한다. 이들 움직임과는 별도로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천연재료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수공예를 고수하면서 기술이나 기능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수공예와 기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대의 실내장식에 있어서 신기술의 수용과 전통적인 수공예의 고수라는 두가지 측면이 시대적 상황과 건축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호대립적으로 또는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윤장섭, 서양건축사, 동명사, 1975
2. 배만실, 장식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3. 박승조, 의자 Style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석사논문, 1984
4. 김강수, 의자의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5. 이종현, 아르데코 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석사논문, 1987
6. Karl Mang(안승정웅역), History of Modern Furniture(현대가구의 역사), A.D.A EDITA Tokyo, 1979
7. Helena Hayward, World Furniture, The Hamlyn Publication, 1981
8. Ray Faulkner and Sarah Faulkner, Inside Today's Home, 4th ed.,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9. Nikolaus Pevsner,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81
10.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The Architectural Press London, 1982